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Vol. 1. No. 2 (2024) pp.179~198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한 청인 대학생의 한국 수어에 대한 진정성 인식과 학습효과

신 홍 임
(국립순천대학교)

Shin, Hong-Im. 2024. Perceptions of Authenticity and Learning Effects of Korean Sign Language among Hearing College Students Using the Word Cloud Technique. ***Sign Languages and Linguistics Convergence Research,*** *1*(2), 179-198.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ptions of language authenticity and learning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ign language users regarding the authenticity of sign language and its learning effects. Self-reported surveys were conducted with hearing university students (n=40) on the following topics: commonalities between sign language and other languages, unique features distinguishing sign language from other languages, positive experiences perceiving sign language as their own language, and overall perceptions of sign language authenticity. A total of 89.6% of students reported changes in their use of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Based on word cloud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sign language users recognized several aspects of its authenticity, including improved communication skills, enhanced emotional expression,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behavioral changes, and increased attention to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rceiving the authenticity of sign language may not only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but also influence behavioral and emotional aspects of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s.

Key Words: Korean Sign Language, Authenticity, Visual Language, Gesture, Learning Effect

1. 들어가기

그리스어의 authentikós (autós, 자신)에서 유래하는 진정성은 '본래의', '자신의', '신뢰성' 등의 다양한 의미와 연관된다. 진정성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에서 관심을 받아왔으며, 일반적으로 정적이고,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도자기가 중국 명나라의 도자기가 진정으로 맞는지를 묻는다면, 명나라 도자기라는 고정된 특성에 비추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Lacoste et al., 2014). 동일한 도자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도자기의 진정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역동적 관점에서의 진정성은 대상-사용자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구성되고, 인식되는 것이다. 진정성의 구성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권위에 의해 진정성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즉, 주어진 대상의 진정성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둘째, 진정성이 방법론적으로 조사되는 설명적 방식이다. 여기서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신뢰성에 의해 진정성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셋째, 진정성이 '현실 효과'를 창출하여 연출되는 수행적 방식이다. 즉, 콘텐츠의 신뢰성에 의해 사용자가 영향을 받으며, 콘텐츠의 진정성이 실현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대상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대상의 진정성은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까?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세 번째 진정성의 구성방식에 따라 진정성을 대상-사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진정성의 개념을 확인하고, 재구성하려 한다.

1.1 언어의 진정성

언어의 진정성은 언어 사용자가 수용하는 코드, 가치, 규범에 따라 태도, 행동 패턴, 아이디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언어의 진정성은 화자나 행위자가 특정 상황에서 그 언어의 고유한 것으로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는 관계적 개념이다(Lacoste et al., 2014). 수어의 진정성(Sign Language Authenticity)에는 수어의 언어적 특징(예: 수어의 시공간 활용, 도상성, 동시성 등), 문화적 뉘앙스, 지역적 변이, 그리고 표정과 같은 비수지적 요소가 포함된다. 진정성 있는 수어는 농사회의 실제 사용을 반영하며, 교육, 미디어, 통역 등에서 정확성과 문화적 존중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수어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

는 수어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수어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동안 선행연구(김혜진, 2021; 박동진, 남기현, 2022)에서는 농인을 대상으로 수어습득, 수어인식과 정체성확립의 관계를 연구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청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 수어습득이후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및 학습효과를 탐색하려 한다. 수어습득에서 학습자가 수어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그동안 수어가 독자적 언어로서 인식되지 못했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성의 유형에는 정적 진정성과 역동적 진정성이 있다(Lacoste et al., 2014). 정적 진정성이 특정 언어가 내적으로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면, 역동적 진정성은 외부로부터 그 언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어를 국가의 공용어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수어는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수어는 수어사용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장은경 등, 2024). 또한 곽정란 등(2004)은 '농'의 개념이 수어의 사회적 수용에 따라 변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인뿐만 아니라 청인들이 수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농의 개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 언어의 진정성은 다양한 수준(예: 권위, 전문지식, 실제 현실에서의 신뢰성 등)에서 “구성되며”,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속성으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적 언어인 수어의 도상성, 공간활용이나 동시성의 이득이 의미전달, 감정표현이나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수어사용자에 의해 지각된다면, 이것은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인대학생이 수어를 이중언어로서 습득했을 때,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수어 사용자의 정서적 및 행동적 측면에서 수어학습효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1.2 한국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과 학습효과

지금까지 수어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신체적 결핍과 의료적 관점에서 인식되어 왔다. 수어를 장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은 음성언어로 말하기만이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는 모든 청각장애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Baynton, 1996). 청각장애아동 교육에서 “순수 구화주의”(즉, 말하기만을 사용하고 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를 널리 추진하는 경향은 19세기부터 현실로 존재해왔으며,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수어가 공식적 공용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Kusters & Lucas,

2022).

이에 따라 수어의 언어적 지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특정 형태의 수어는 여전히 “비언어(nonlanguage)”로 분류되고 있다(Kusters & Lucas, 2022). 따라서 수어의 구분과 다른 수어 사용 방식(예: 제스처, 홈사인)과의 차별화는 핵심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또한 수어는 농인과 청인 모두에 의해 사용되며, 구어 및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점점 더 다른 수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상황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어와 구어, 수어와 문자 언어, 그리고 수어 간의 복합적이고 다중양상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수어가 진정한 언어로서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인식(recognition)’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다른 음성언어의 경우 이 언어를 진정한 언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언어로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자동적이기 때문이다(Lacoste et al., 2014). ‘인식’의 개념은 수어 공동체가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데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수어가 “진정한” 언어로서의 기본 지위를 갖는 문제는 청각 장애 학생들의 교육 초기 단계에서 교육 언어를 결정하거나, 청각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예: 수어 통역사를 통한 참여)에 대한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수어를 독자적인 언어로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는 수어가 농인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Najarian(2008)에 의하면, 수어습득경험이 농인여성들의 정체감형성과정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수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농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농인 여성은 수어를 알게되면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어사용은 농사회와 연결되며, 자신의 농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언어학에서는 특정 언어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는데,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낀다. 농인 공동체 내에서 한국 수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인대학생이 수어를 습득할 때,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서 자신의 언어로 지각하고,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수어학습효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에서 수어학습효과는 수어사용을 통해 수어사용자의 정서적(예: 즐거움, 자신감) 및 행동적 측면(예: 표정, 제스처의 변화 등)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통해

측정하려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제 2외국어의 습득이후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Freeman과 Marian(2016)의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경험이 개인이 환경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옴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구추적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사용한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언어습득경험이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인 인지 통제와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불필요한 정보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인지통제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단일 언어 사용자에 비해 인지적 이득(예: 경쟁적 언어단서의 효율적 억제)을 보였다. 이것은 이중언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제 1언어의 한 단어를 들었을 때, 이와 경쟁하는 제 2언어의 다른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억제하는 인지통제가 수시로 작동하기 때문에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인지처리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Kroll, 2009). 또한 감정처리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제1언어와 제2언어에서 언어적 맥락과 문화적 소속감이 감정적 사건의 저장 및 회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제 1언어에 충분하지 않을 때, 이중언어 사용자는 제 2언어로 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Pavlenko, 2008). 또한 Marian와 Kaushanskaya(2008)의 연구에서는 러시아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을 때, 성인기에 이주한 이중언어 사용자보다 러시아의 기억에 대해 더 많은 정서단어를 사용했고, 더 많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어린시기에 이주했기 때문에 L2가 비교적 유창하고, L1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회상하는 것이 수월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언어습득이 한 개인의 정서기억에 차별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제 2외국어 학습의 영향을 보고하였던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제 2외국어로서의 수어습득과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언어습득의 이득과 학습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Casey 등(2012)의 연구에는 미국수어를 습득한 청인대학생들이 연구자가 제시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프랑스어, 스페인어나 이탈리어를 학습한 청인대학생들보다 자신의 표정과 제스처가 증가하고, 손짓이나 제스처의 모양/방향이 바뀐다고 인식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일양상 이중언어 사용자(두 개의 음성언어를 습득)와 이중양상 이중언어 사용자(시각언어와 음성언어)에 대한 비교이며, 이중언어를 성인기에 습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중언어를 습득한 경우 제 1언어와 제 2언어가 제스처

의 사용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보고되었다[1]. Casey와 Emmorey(2009)의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ASL(미국 수어)과 영어 모두에 노출된 이중양상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단일양상 언어로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이야기를 생산할 때 몸짓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인공과 닮은 표현적 몸짓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성인기에 이중언어를 습득한 경우 제 2언어인 수어가 제 1언어인 음성언어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asey 등(2012)이 보고한 이중양상 이중언어습득의 이득을 한국수어를 습득한 청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검증하려 한다.

수어습득이후 표정 및 제스처의 변화는 표정/제스처 수준을 넘어서는 인지능력향상을 보여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말과 함께하는 몸짓(co-speech gesture)이 기억력, 학습능력 및 공간인지(spatial cognition)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Broaders, Cook, Mitchell & Goldin-Meadow, 2007; Cook, Yip & Goldin-Meadow, 2010). 예를 들어, Cook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사건을 묘사하면서 몸짓을 사용했을 때, 사건을 회상하는 능력이 몸짓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나 비교 집단보다 더 뛰어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hu와 Kita(2011)의 연구에서는 말과 함께하는 제스처 뿐만 아니라 과제를 생각하면서 말없이 수행되는 "생각과 동반되는 제스처(co-thought gesture)"도 정신회전(mental rotation)과제 수행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mmorey 등(1993)의 연구에서는 유창한 미국수어-영어 이중언어 사용자가 비수어사용자보다 뛰어난 정신적 회전 능력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asey 등(2012)의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청인대학생이 한국수어의 진정성에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고, 시각적 언어인 수어가 음성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인대학생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

1) Pika, Nicoladis, Marentette(2006)의 연구에서는 성인이 되어 스페인어를 배우고(최소 1년 동안 스페인어 사용 국가에서 거주) 영어를 구사하는 화자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몸짓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스페인어 학습으로 인한 언어적 효과보다는 문화적 노출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Brown과 Gullberg(2008)의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일본어 모국어 화자가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일본어 모국어 화자와 비교했을 때, 모국어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몸짓을 사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Choi와 Lantolf(2008)의 연구에서는 고급 수준의 제2 언어로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하는 화자들이 제1 언어(영어 또는 한국어)에서 제스처를 사용할 때 여전히 제1 언어의 동반 몸짓 패턴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따라서, 단일양상 이중언어사용에서는 제2 언어가 제1 언어의 제스처의 사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뚜렷한 증거는 거의 없다.

보려 한다. 한 음성언어에서 다른 음성언어로 외국어학습효과가 전이되는 것이 단일양상(음성 → 음성) 이중언어 습득효과인데 비해 수어의 경우 이중양상(시각 → 음성) 이중언어 습득효과와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상 이중언어 습득효과가 사용자가 지각하는 수어의 진정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수어의 진정성은 수어가 다른 음성언어와 다른 특성, 수어습득이후 나타난 변화, 수어를 나의 언어로 느끼는 정도 및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서 느끼는 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연구

2.1. 연구대상

한국어 음성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4년제 대학교의 청인 대학생들(N = 83, 나이: 평균 20.7세,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매주 2시간 한국어 수어(n = 40) 또는 독일어 기초수업을 교양과목으로 한 한기 동안 수강한 대학생(n = 43)이었다.

2.2.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질문지는 수업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수어 습득 이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Casey 등(2012)를 토대로 두 개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1) 기초수어/독일어 과목을 수강한 이후 제스처 사용빈도의 변화(1: 증가, 2: 감소, 3; 변화 없음), (2)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 제스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기[2]. 또한 추가적으로 수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수어 과목을 수강한 이후 표정 및 제스처가 변화했다고 느낀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1: 전혀 없음, 7: 아주 많이 변화했음). 연구수행자는 참가자들에

2) 기초수어 과목을 수강한 이후 자신의 표정 및 제스처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원래 대화를 할 때 표정없이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말없는 성격으로 지내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풍부해지는 것 같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고, 상대방에 집중하다보니 나 자신도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 ‘감정을 예전보다 더 많이 표현하고, 표정으로 더 잘 표현하게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 제스처의 정의를 몸짓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거나 표현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질문지가 종료된 후, 수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국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질문지는 선행연구(Najarian, 2008; 박동진, 2012)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우선 이 질문지에서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수어의 진정성을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습자는 수어의 진정성을 문법, 소통, 의미 전달, 감정표현 및 '나'라는 정체감형성의 측면에서 평정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총 네 가지의 개방형 질문이 사용되었으며, 참가자의 반응을 수월하게 촉진하기 위해 응답예시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수어가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어가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어가 '나의 언어' 또는 '나에게 좋은 언어'라는 느낌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어를 진정한 언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연령, 성별 및 전공에 대한 인적사항을 질문한 후 질문지를 종료하였다.

[표 1] 이중언어 교과목의 유형(단일양상 vs. 이중양상)과 표정/제스처 사용의 변화

언어 유형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이중양상 수어(n=40)	89.6%	0.0%	10.4%
단일양상 독일어(n=43)	6.7%	12.1%	81.2%

2.3. 결과분석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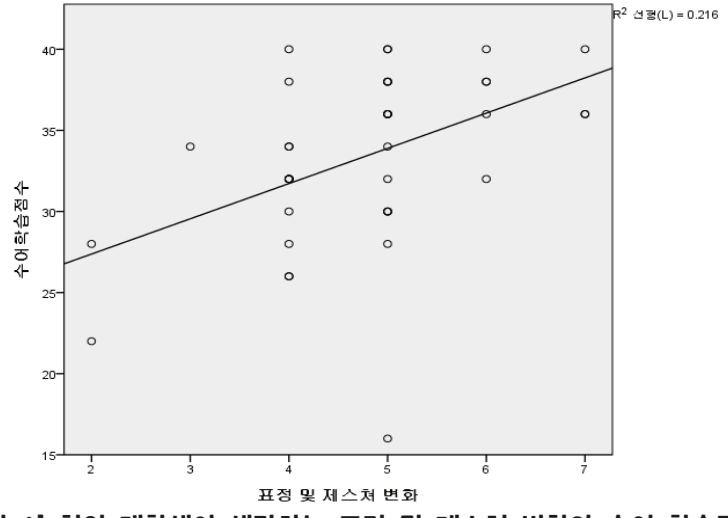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제 2외국어(수어, 독일어)를 습득한 이후 나타난 변화를 비교하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어 과목을 수강한 청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어를 진정한 언어라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주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어 분석은 최근 많은 연구(서봉언, 이채문, 2014)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데이터에 나타난 주요 단어의 출현빈도를 요약

하여 분석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단어 및 단어의 중요성을 키워드크기로 제시한다.

2.3.1. 표정 및 제스처의 변화, 수어 진정성의 인식 및 학습성과

표 1과 같이 참가자가 수강한 이중언어 교과목의 유형(이중양상 수어 vs. 단일양상 독일어)에 따라 언어습득의 이득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어 과목을 수강한 이후 음성언어를 사용할 때 제스처의 빈도가 더 많아진다고 응답한 학생이 독일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다, ($x2 = 33.07$, $p < .001$). 이것은 수어를 학습한 경험이 학생들의 음성언어 사용시에 시각적 출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Casey 등(2012)과도 일치한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수어습득 이후 표정 및 제스처의 사용변화를 인식한 정도(M = 4.79 SD= 1.02)와 수어학습점수(M = 82.5, SD = 2.3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46, p = .003). 연구 참가자들이 수어습득이 자신의 제스처에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한 학생들일수록 수어학습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청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표정 및 제스처 변화와 수어 학습점수 간의 관계

주목할 것은 학습자가 인식한 수어의 진정성과 수어학습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표 2와 같이 학습자가 수어가 소통의 측면에서 진정한 언어라고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수어학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r = .43$, $p = .007$). 또한 학습자가 수어를 의미전달의 측면에서 진정한 언어라고 생각할수록 수어학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r = .42$, $p = .008$). 이와 더불어 감정표현의 수어를 진정한 언어라고 인식할수록 수어학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r = .52$, $p = .001$). 수어를 '나'라는 정체성형성의 측면에서 진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수어학습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r = .40$, $p = .01$). 문법의 측면에서 수어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어의 진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할수록 수어학습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습자가 수어의 진정성을 인식하는 것이 수어 학습성과와 유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 학습자가 인식하는 수어의 진정성 측면과 수어학습점수 간의 상관관계

수어 진정성의 측면	M	SD	1	2	3	4	5	6
1. 학습점수	75.05	4.61						
2. 문법	5.45	1.35	.30					
3. 소통	5.87	1.21	.43**	.38*				
4. 의미전달	5.97	1.12	.42**	.47**	.80**			
5. 감정표현	6.32	1.23	.52**	.49**	.57**	.60**		
6. 정체감형성	6.42	1.08	.40*	.29	.58**	.49**	.83**	

* $p < .05$, ** $p < .001$

2.3.2. 수어와 다른 음성언어의 공통점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 참가자들은 그림 2와 같이 수어가 다른 음성언어처럼 의미를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문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어가 다른 언어처럼 국가에 다르며, 지역마다 다른 방언도 존재한다는 응답도 제시되었다.



[그림 2] 청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수어와 다른 음성언어의 공통점

2.3.3. 수어와 다른 음성언어의 차별성

연구 참가자들은 그림 3과 같이 수어가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하는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에 더 집중하게 되며,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어는 도상성이 강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수어로 소통하면 화자와 청자가 표정을 뚜렷하게 하여 화자의 기분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수어는 음성언어와는 달리 조용하고,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되었다.



[그림 3] 청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수어와 다른 음성언어의 차이점

2.3.4. 수어를 '나의 언어' 또는 '나에게 좋은 언어'로 느낀 경험

청인대학생들은 수어습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수어사용시에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일부학생들은 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자신 스스로를 성장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평소 목소리가 좋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했는데 수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언젠가 나도 청각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어가 나에게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몇몇 학생들의 경우 수어연습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예: 유치원과 초등학교때 수어노래를 연습하던 추억을 회상, 친구들에게 수어를 알려줄 수 있다는 자부심 등)도 언급하였다. 이 결과는 수어습득이 언어의 사용을 넘어서 청인대학생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며, 사회적 관계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청인 대학생이 수어를 '나의 언어' 또는 '나에게 좋은 언어'로 느낀 경험

2.3.5.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 느끼는 이유

청인대학생들은 그림 5와 같이 수어도 다른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언어이며, 농인과 소통할 때 의미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언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화가 힘든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생생하고 풍부한 대화가 가능하고, 농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언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 청인 대학생이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 느끼는 이유

3. 결론 및 시사점

3.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어를 습득한 청인대학생이 수어의 진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수어 진정성에 대한 인식과 수어학습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인대학생들이 수어습득이후 자신의 행동적 측면(예: 표정 및 제스처의 변화)에서 변화를 인식하였고, 이 변화를 크게 인식할수록 수어학습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정 및 제스처의 변화는 정보처리과정에서 표정/제스처의 수준을 넘어서 기억력, 학습능력 및 공간인지(spatial cognition)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Casey 등,

2012).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잠재적 함의는, 수어습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제스처의 사용 빈도가 청인대학생들에게 시공간활용을 통해 정보가 기억에 입력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쳐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인대학생들이 수어의 진정성을 다양한 측면(예: 소통, 의미전달, 감정표현, 정체성 형성)에서 인식할수록 수어 학습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가자들은 한 학기동안의 수어학습에서도 수어와 다른 음성언어의 공통점, 수어가 다른 음성언어와 차별화되는 이득, 수어의 진정성 인식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청인대학생들은 수어가 다른 음성언어와 같이 의미와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어 고유의 특성을 통해 수어사용자에게 풍부한 소통과 긍정정서(예: 즐거움, 자부심, 성장의 느낌 등)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인대학생들은 농인들처럼 수어습득을 자신의 정체성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수어습득이후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의 변화를 보고하였다. 청인대학생들은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서 느끼는 경험을 주로 자신의 표정 및 제스처의 변화, 과거의 추억이나 수어사용과 연관된 긍정적 정서경험을 언급하여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관된 응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어교육에서 학습자가 수어의 진정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장과정과 연결시키기 위해 정서 및 행동과 연관된 주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3.2.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수어학습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된 표집크기로 인해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자료가 다양하게 수집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청인들을 연구 참가자로 모집하여 수어능숙도에 따라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어진정성과 학습성과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만을 통해 분석한데 비해, 후속연구에서는 한 한기동안 수어수업의 시간경과에 따라 중간/기말 학습점수가 향상되는 집단과 변화가 거의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인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수어사용의 긍정적 경험에 대해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정은혜, 2023)에 의하면 언어에 대한 태도는 언어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져서 농인은 수어를, 청각장

애인은 구어를 다른 언어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인 대학생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수어와 음성언어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어사용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어교육환경, 수어사용과 언어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청인대학생의 수어사용이 단순한 제스처의 변화가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과 농문화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정승희(2015)는 현재 한국 사회의 농인이 청각손실이라는 신체적 장애보다는 청인의 차별 및 청인과의 문화적 차이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어교육환경, 청인의 수어습득과 수어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이 농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은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했다(Freeman & Marian, 2016). 본 연구에서는 제 2 언어로서의 수어습득이 청인대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청인대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시각언어인 수어습득을 통해 의사소통상황에서 자신의 표정 및 제스처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인대학생들이 수어를 진정한 언어로서 소통, 의미전달, 감정표현 및 정체성 형성의 측면에서 인식할수록 수어학습효과는 더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새로운 언어습득이 언어적 확장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주며,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세계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수어습득의 종단연구를 통해 수어습득이 한 개인의 의사소통양식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곽정란·정운기·김경진 (2004).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교육의 전환. 「특수교육연구」, 11권, 231~253.

김혜진 (2021). 수화언어와 농정체성에 대한 농인 당사자의 시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동진·최종혁·이준우 (2012). 청각장애 청소년의 농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권, 155~183.

박동진·남기현 (2022). 농인의 농정체성이 농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수어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회 논문지」, 23권, 177~184.

서봉언·이채문 (2014).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 「디아스포라연구」, 8권, 43~69.

정승희 (2015). 농인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권, 85~103.

정은혜 (202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및 수어와 한국어에 관한 인식 탐색.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4권, 1~23.

Baynton, D. C. (1996). *Forbidden signs: American culture and the campaign against sign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aders, S. C., Cook, S. W., Mitchell, Z. A., & Goldin-Meadow, S. (2007). Making children gestures brings out implicit knowledge and leads to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6*(4), 539-550.

Brown, A. & Gullberg, M. (2008). Bidirectional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1-L2 encoding of manner in speech and gesture: A study of Japanese speakers of Englis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0*(2), 225-251.

Casey, S., Emmorey, K., & Larrabee, H. (2012). The effects of learning American Sign Language on co-speech gesture.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6*(4), 677-686.

Choi, S. & Lantolf, J. P. (2008). Representation and embodiment of meaning in L2 communication: Motion events in the speech and gesture of advanced L2 Korean and L2 English speak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0*(2), 191-224.

Cook, S. W., Yip, T. K., & Goldin-Meadow, S. (2010). Gesturing makes

memories that last.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3*(4), 465-475.

Emmorey, K., Kosslyn, S. M., & Bellugi, U. (1993). Visual imagery and visual spatial language: Enhanced imagery abilities in deaf and hearing ASL signers. *Cognition, 46*(2), 139-181.

Freeman, M. & Marian, V. (2016). Cognitive and emotional effects of bilingualism in adulthood. In Elena Nicoladis & Simona Montanari (Eds.), *Lifespan perspectives on bilingualism*, (pp.285-303). APA and De Gruyter.

Kroll, J. F. (2009). The consequences of bilingualism for the mind and the brain.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10*(3), I-ii.

Lacoste, V., Leimgruber, J., & Breyer, T. (2014). *Authenticity: A view from inside and outside sociolinguistics.* Berlin/München/Boston:De Gruyter.

Marian, V. & Kaushanskaya, M. (2008). Words, feelings, and bilingualism: Cross-linguistic differences in emotionality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The Mental Lexicon, 3*(1), 72-90.

Nachtigall, V., Shaffer, D.W. & Rummel, N. (2024). The authenticity dilemma: Towards a theory on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authentic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9,* 3483-3509.

Najarian, C. G. (2008). Deaf women: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elf-identity. *Disability & Society, 23*(2), 117-128.

Pavlenko, A. (2008). Emotion and emotion-laden words in the bilingual lexicon.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1*(2), 147-164.

Pika, S., Nicoladis, E., & Marentette, P. F. (2006).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use of gestures: Evidence for crosslinguistic transfer?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9*(3), 319-327.

Tamimi Sa'd, S. H. (2017).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identity reconstruction: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s of the self, the other and power. *CEPS Journal, 7*(4), 13-36.

신홍임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255 국립순천대학교 기초교육관 416호
전 화: 061)750-3809
이메일: shin7038@scnu.ac.kr

논문접수: 2024년 11월 30일
수정완료: 2024년 12월 11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27일